

# <황금어장>

글 : 최 유 정  
원작 : 황금어장

<등장인물>

주인공 남자 : (21세)일경 \_ 상경계열 4년제 명지대 정도의 대학을 다니다가 의경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음. 특별히 튀는 성격은 아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기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지만 특별히 힘든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친구와 1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것이 전부. 그래도 기죽는 성격은 또 아니어서 이걸 아니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과 판단력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 일경... 어리버리하다. 교통관리과로 발령 받는 첫 날. 교육시간에 보여주는 교통사고 관련 사진들과 입고 있는 제복은 나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겠다는 어설픈 사명감을 안겼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강주임 : (30대 중반) 처음에는 정의로운 교통과 직원이 되겠다 의욕이 불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의지도 3개월... 점점 일하는 스킬이 늘어간다. 그리고 얼마 전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전에 있던 보직에서는 특별히 성과점수를 낼 만한 일이 없었던 터라 슬슬 걱정이 되던 그에게 기회가 왔다. 말로만 듣던 황금어장에 발령이 난 것. 이제 내년 고과 점수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승진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게 무슨... 사고라니....

<시놉시스>

chapter1. 어리버리 일경 '황금어장'에 발령받다.

교통관리과에 발령받은 양호민 일경. 무더운 여름. 외근이 많은 교통관리과에 발령받은 것이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있나, 출근해야지. 담당 선임인 강주임과 한 팀이 된다. 교통 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호민은 근무지역을 배정 받는다.

chapter2. 발령 첫 날. 이론과 실전은 달랐다. 뽕뽕 달리는 덤프트럭들이 멈출 생각을 안 한다. 그래! 이 모든 것을 단속해서 원리 원칙을 지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겠어!

그런데...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 아니야? 모두들 당당하게 날 욕해!!!

chapter3. 양일경. 황금어장의 정체를 알게 되다.

며칠동안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욕을 잔뜩 얻어먹은 양일경은 의기소침해있다. 그런 양일경에게 다가오는 강주임. “야! 인마! 그걸 다 끊으면 어떻게 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러다 황금어장 물고기 씨 마르면 책임질래?!” 황금어장의 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강주임. “적당히 해. 적당히 봐주면서. 어! 편하게 있다 가란 말이야 이 친구야.”

chapter4. 그래 뭐 내 일 아닌데. 강주임님도 편하고, 나도 욕 그만 먹자.

강주임의 말을 듣고 타협하는 양일경.

chapter5. 곧 있으면 태어날 아이를 위해 승진하고 싶은 강주임.

과속에 하던 덤프트럭에 치이다. 그의 얼굴은 면칠 전 양일경이 봐준 바로 그 트럭기사다. 그것을 보고 정신 차린 양일경.

chapter6. 더 이상 황금어장은 없다. 양일경과 교통과 동료들 정신차리고 철저히 단속한다.

몇 개월 후 위반률은 현저히 줄고, 의식 없던 강주임은 태어난 아이와 함께 교통과로 돌아온다.

## S#1 교통 관리과 사무실 안-입구 (D)

교통관리과 사무실 한쪽 커다란 둥근 테이블에는 7여명의 교통 관리과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가 기 전 조회를 하고 있고, 두리번거리며 들어오는 양일경이 보인다. 이제 18살이나 됐을 법 한 어린얼굴의 양일경은 긴장한 상태로 교통관리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때, 뒤에서 누가 어깨를 툭 치고, 화들짝 놀라는 양일경. 놀라 뒤를 돌아본다. 교통관리과의 제복을 입은 강주임이 서있다. 놀라 어버버거리는 양일경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양일경의 이름표를 보는 강주임. ‘양호경’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강주임 : (이름표를 보며중얼거리 듯) 양호경,

양일경 : (놀라서) 네.

강주임 : (관등성명을 하려고 입을 벌리는 양일경의 말을 자르며) 따라와요.

앞장서 가는 강주임. 강주임을 따라가는 양일경.

## S#2 교통 관리과 사무실 안-강주임의 자리 (D)

어느덧 강주임의 옆자리에 긴장한 듯 앉아 있는 양일경. 강주임의 자리 옆 보조 의자에 혼자 멍뚱하게 앉아있다.

강주임의 자리에는 임신한 아내와 찍은 사진이 놓여있다.

강주임은 양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자리에 앉는다. 잔에는 커피가 들어있다.

강주임 : (커피잔을 내밀며) 마셔.

의자에서 엉덩이가 살짝 떨어진 정도로 불편한 자세로 불편하게 커피를 받아드는 양일경.

강주임 : (불편해 보이는 양일경을 보면서) 편하게 앉아

양일경 : (나즈막하게) 네.

강주임 : (컴퓨터를 살피며) 자... 뭐부터 보여줄까... 그래, 이게 좋겠네.

현장에 나가기 전 양일경에게 기초교육을 시키는 강주임. 그 동안의 사고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8중 추돌사고의 자료사진을 보여주며

강주임 : 자, 봐봐. 지난달에 난 8중 추돌 사고 사진이야. (사진을 넘겨 다른 차량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차 운전자랑 (다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차 운전자는 즉사 했고, (다음 사진을 넘기며) 여기 이 차는 운전자는 살았는데 보조석에 타고 있던 와이프가 중태야.

(양일경을 바라보며) 면허 있어? 없어?

양일경 : 아직 없습니다.

강주임 : 이거, 이거, 나중에 면허 따면 신호를 잘 지켜야 돼.

그 때, 들어오는 강주임의 옆자리 동료 단속반 직원 김주임이 자신의 자리로 가기위해 강주임 앞을 지나간다.

김주임 : 보조강태공이 왔구만. 잘 해봐~!

이상한 인사를 건네는 동료의 인사에 재미있다는 듯 키득 대며 웃는 강주임과 여전히 긴장한 표정의 양일경.

### S#3 단속지역 - 차안, 밖 (D)

무더운 여름. 뽕뽕달리는 차도 위의 덤프트럭들이 보이고 놀라고 겁먹어 굳어 있는 양일경이 보인다. 몇몇 차량은 너무 세게 달려서 멀리서 보는데도 위협적이다. 그 때, 울리는 무전기 소리.

무전기 (V.O) : 서울 다 3982 차량 속도 위반차량. 지금 출동 해 주세요.

어설픈게 달리는 양일경. 벌써 운전석에 타 안전벨트까지 멘 강주임과 달리 안전벨트 빼는 것도 버벅거린다. 출발하는 단속차량.

덤프트럭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 강주임의 차량. 양일경은 어설픈게 강주임을 따라 차에서 내린다. 우물쭈물 강주임의 옆에 서 있는 양일경.

단속 딱지를 끊은 덤프트럭은 출발하고, 곧 바로 들어오는 다른 무전. 쉴 틈없이 다시 달려 차에 타는 두 사람. 차량 출발한다.

cut to

차 창 밖에는 벌써 노을이 지고 있다.

차 안에 앉아 모자를 잠시 벗어보는 양일경의 모자에는 종일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하얀 소금같은 것이 맺혀있다. 흰 얼룩자국을 문질거려보는 양일경.

강주임 : (웃으며) 장난이 아니지? 잘 따라다녀!

양일경 : 네....

### S#4 단속지역 - 도로 위 (D)

잔뜩 긴장해서 도로 위에 서 있는 양일경은 과속하는 덤프트럭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우고 속도 위반 딱지를 끊는다.

양일경 : 면허증 주세요.

면허증을 내어주는 트럭기사.

양일경 :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갑자기 표정이 더욱 굳어지며 항의하기 시작하는 트럭기사1.

트럭 기사1 : 뭐? 7만원에 15점? 아, 장난해?!

양일경 : 속도위반 규정이 그렇습니다.

트럭 기사2 : 아니, 왜 안하던 짓을 하고 그래. 새로 와서 뭘 잘 모르는구만!

양일경 :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럭 기사3 : 장난하나, 교육을 어떻게 받고 온거야!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것이!

양일경 : 규정이 그렇게 되어...

트럭 기사4 : 거 참, 젊은 친구가 융통성 없이...

양일경 : 안전운전을 하셔야....

트럭 기사 5 : 뭐어? 내가 운전을 자네 태어나기 전부터 했어.

계속해서 바뀌는 트럭 기사들의 얼굴과 점점 어두워지는 양일경의 표정. 고개는 점점 숙여진다.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되면서 양일경의 얼굴과 교차된다.

양일경의 깨끗했던 얼굴에는 단단히 독이 올라 붉게 굵은 뾰루지가 두 세 개 올라와 있다.

양일경 : 규정이....

## S#5 교통과 사무실 내부 (N)

뾰루지가 잔뜩 난 얼굴의 양일경이 S#4의 화면에서 디졸브 되어 넘어오면 교통과 사무실 쇼파에 멍하게 앉아있는 양일경의 얼굴이 보인다. 고개를 돌리자 커다란 거울이 보인다.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에 뾰루지가 난 것을 보고 약기로 살짝 건드려보는 양일경.

양일경에게 다가오는 강주임. 양일경 옆에 놓인 두께 10cm는 족히 넘어보이는 서류를 본다.

강주임 : 빨리 정리하고 가

양일경 : 네

그 때, 교통과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강주임 전화를 받는다. 통화를 하면서 멀리 앉아있는 양일경을 보는 강주임.

## S#6 국밥집 안 (D)

국밥집에 앉아 점심을 먹는 두 사람. 식당 안 벽걸이 TV에는 최근 일어난 살인범의 형량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강주임 : 야, 사람을 저렇게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 징역이냐며 법이 문제가 많아.  
양일경 : (강주임의 말에 동조하면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15점에 7만원도 딱  
지 끊어도 이렇게 막 다니는데, 우리도 범칙금하고 벌점을 올리면 좀 과속하는 사람  
출지 않을까요?  
강주임 : (밥 먹던 것을 잠시 멈추고) 뭘 모르네.. 그건 좀 다르지.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그  
러는 건데.  
너, 우리 구역 별명이 뭔지 알아?  
양일경 : 아니요....  
강주임 : 황금어장이야, 황금어장. 어장에 뭐가 살어?  
양일경 : 물고기...  
강주임 : 그래, 다 개체수가 유지가 돼야 어? 어장 주인도,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지.  
트럭운전으로 몇푼이나 벌겠어,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경고 정도  
해 주고, 어?  
그리고..여기 이렇게 힘든데 다들 왜 오려고 그러는지 알아? 성과점수 올려서 승진하  
기도 좋고! 다 그런 거야.  
너도 욕먹지말고 적당히 여기 룰을 지켜야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잖아.  
괜히 민원 전화만 들어온다고...

강주임의 이야기를 들은 양일경은 불편한 무언가 불편한 표정이 된다.

## S#7 단속지역 - 도로 위 (D)

다시 도로 위. 무더운 여름 날 아스팔트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있다.  
지친 표정으로 과속하는 덤프트럭 한 대를 멈춰 세우는 양일경. 운전자의 창문이 내려오고 양일  
경은 작은 한숨을 내쉰다.

양일경 :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입니다.

기사 : 내가 여기를 몇 년이나 왔다갔다 했는데, 이런 적이 없어. 왜그래 윙통성 없이!

양일경 : (한숨을 내쉬고는) .....그게... ㄱ ㅠ.. 아....이번 한 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범칙금3만원짜리 딱지를 끊어 기사에게 전달한다.

기사 : 진작 그럴 것이지

오히려 당당한 기사는 더 이상의 항의를 하지 않고 새로 발급된 딱지를 받아들고 출발한다.

## S#8 교통과 사무실안 (N)

책상 위 잔뜩 쌓여있는 서류철을 하나씩 정리해 캐비닛 안에 넣고 있는 양일경의 표정이 밝다. 얼굴의 뾰루지도 사라졌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김주임. 양일경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가온다.

김주임 : (서류들을 들추며) 이야~ 이게 다 오늘거야? 다들 목숨걸고 달리는구만  
(강주임을 보며) 금방 자리 옮기겠어~

강주임 : 미친놈. 쓸대 없는 소리 하지마

김주임 : (웃으며) 오늘 쏘주나 한 잔 하까?

강주임 : 안돼, 오늘 우리 마나님 쭈꾸미 드시고 싶으시단다.

김주임 : 어이구 좋겠어, 얼~른 들어가셔야죠~!

피식 웃는 강주임, 마지막 서류를 캐비닛에 몰아 넣는 양일경. 캐비닛 문을 닫는다.

강주임 : 널부터 휴가지? 잘 쉬고 와라

양일경 : (웃으며) 네.

강주임의 인사를 받고 밝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서는 양일경.

## S#9 건물복도 -> 주차장 (N)

화장실에서 나오는 양일경. 퇴근준비를 마친 강주임과 마주친다.

강주임 : 아직 안 갔어?

양일경 : 부대 차 배차에 문제가 좀 생겨서 큰 사거리쪽까지 일단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강주임 : 우리 구역 큰 사거리?

양일경 : 네

강주임 : 그럼 내차 타, 고 앞에 지나가니까 내려줄게.

양일경 :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차 앞에 도착한 두 사람. 강주임의 차에 올라탄다.

## S#10 차 안 (N)

차 안에는 초음파 사진과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다. 첫 날 강주임의 자리에서 본 것과 비슷하지 만 다른 옷의 사진으로 강주임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양일경 : 애기가 언제 태어나요?

강주임 : 우리 튼튼이? 다음 달에 태어나

양일경 : 튼튼이에요? 우와

강주임 : 어, 이놈이 운동 선수가 될라고 그러는지 발차기 실력이 뱃속에서부터 장난이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옆에 놓은 휴대폰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내가 이거 아무나 잘 안 보여  
주는건데 특별히 보여준다.

양일경에게 초음파 동영상 보여준다.

신기한 듯 동영상을 보는 양일경.

강주임 :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승진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싶어. 이게 생각이 막 바뀐다니  
까. (웃으며) 어디, 저기 저 앞에 세워 줄게.

양일경이 내려야 할 곳에 도착한 두 사람.

양일경 : 네.. 저...요기 앞에서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주임 : 어. 그래 잘 쉬고 다음 주에 봐.

양일경 : 네, 감사합니다 .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린 양일경. 저 멀리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단속 구역이 보인다.

강주임의 차는 단속구역을 지나가기 위해 출발한다. 몇 초 후 들려오는 굉!하는 소리.

강주임의 차가 과속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고, 덤프트럭은 그런 강주임의 차  
옆에 길 한 복판을 대각으로 가로지른 상태로 멈춰있다.

놀란 양일경. 약 400m정도 되어 보이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현장의 모습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일 때 쯤 덤프트럭에서 운전자가 내린다.

거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일경의 시야에 가득 찬 운전자의 얼굴.

며칠 전 자신이 처음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깎아준 그 사람이다. 운전자의 이마에도 피가 흐르  
고 있다.

cut to - 몽타쥬

울먹이며 사고 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여는 양일경.

정신을 잃은 강주임을 꺼내는 양일경.

현장에 도착한 응급대에게 소리치는 양일경.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서럽게 울고 있는 양일경.

양일경의 동료의 부축을 받고 차에 올라타는 양일경.

사무실에서 군 검사관의 조사를 받는 양일경의 모습.

쇼파에 앉아 의경 간부로 보이는 사람과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양일경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지  
나간다.

### S#11 양일경의 집-식탁 (D)

10의 몽타쥬에 이어 잘 차려진 식탁이 보인다. 식탁위에 국을 내려놓는 양일경의 엄마.

엄마 : 어서 와서 먹어

양일경 : 아빠랑 누나는 출근 했어?

엄마: 그럼 진작 나갔지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식탁 앞에 앉는 양일경.

깨작거리며 밥을 먹는 양일경의 앞으로 고기반찬과 이런 저런 반찬을 양일경의 앞으로 끌어 놓아주며

엄마 : 이것도 좀 먹어

여전히 깨작거리며 밥을 먹는 양일경.

### S#12 양일경의 집 현관 (D)

신발을 신고 있는 양일경.

신발을 신고 상체를 세우자 양일경의 엄마는 그에게 모자를 건넨다.

양일경이 받아든 모자에는 하얀 얼룩이 여전히 남아있다.

얼룩을 잠시 만지는 양일경.

엄마 : 잘 갔다 들어가 아들.

양일경 : 네, 갈게요

집을 나가는 양일경.

### S#13 병원복도 - 병실 안 (D)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양일경의 뒷모습으로 간부의 목소리가 흐른다.

(위로 흐르는 상급자의 목소리 ‘복귀하면 근무처를 옮기는게 어떻겠냐’는 내용이다.)

목소리가 끝나고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양일경.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간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강주임.

양일경은 그 옆에 앉아 있는 강주임의 아내와 눈이 마주친다.

서로 가볍게 목 인사를 하는 강주임의 아내와 양일경.

양일경은 만삭이 되어있는 강주임 아내의 배를 본다.

cut to

강주임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아 있는 두 사람

강주임 아내 : 와 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남편이 회사 일 잘 말 안 하는데.. 호경씨 착하다는 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양일경 : 아.... 죄송해요...

강주임 아내 : 아니에요. 호경씨 잘못 아닌 거 알아요.... (눈물을 참는다)

양일경 : (한참을 고개숙이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강주임 아내 : 아... 들어가셔야죠? 고마워요.

양일경 : 아니에요. 그럼...

병실을 나서는 양일경.

#### **S#14 버스 안. (D)**

버스에 앉아있는 양일경. 창 밖에는 노을이 지나가고 있다.

#### **S#15 버스 정류장 (D)**

버스에서 내리는 양일경.

#### **S#16 양일경의 부대 앞 (D-오후 저녁)**

부대로 들어가는 양일경.

#### **S#17 교통 관리과 사무실 안 (D)**

교통 관리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양일경. 사무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약간 놀란 표정으로 양일경을 바라본다. 사람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하고 캐비닛으로가 서류를 챙기는 양일경. 테이블 앞에 모여 앉은 교통 관리과 사람들. 한쪽 간의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양일경의 모습이 보인다.

김주임 : 자 오늘은 지역 이렇게 가고... 어제 내려온 지침대로 오늘부터는 (지도를 가리키며)구역이 여기랑 여기로....

양일경은 바닥 한 쪽에 시선을 고정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cut to

조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 양일경도 따라 나간다.

## S#18 단속관리구역 (D)

여전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덤프트럭들.  
양일경, 한 덤프트럭의 기사2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기사2 :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규정을 올리냐고요.  
양일경 : 원래 그 규정이었습시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게 규정입니다. 자꾸 이러시면 벌점 추가 되실 수 있어요.  
기사2 : 아... 진짜, 나참...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내 포기하고 트럭 출발한다.  
양일경에게 다가오는 김주임.

김주임 : 관찮아?  
양일경 : 네? 네, 관찮습시다.  
김주임 : 관리 구역을....

그 때 무전기로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무전이 들어온다.  
저 멀리 달려오고 있는 1톤 트럭.  
양일경은 트럭을 멈춰 세운다.

양일경 : 신분증 제시 해 주세요. 벌점 15점에 벌금 7만원입니다.  
트럭기사 : 뭐? 15점? 7만원?

양일경이 무어라 말을 하려고 하자 김주임이 먼저 말한다.

김주임 : 위반 하셨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도 추가 되요. 사고 나요. 사고.

못마땅한 듯 투덜거리며 창문을 올리고 출발하는 트럭.  
트럭이 떠난 자리에 김주임과 양일병 두 사람이 남아 있다.  
양일경 김주임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김주임 : 아이고~ 빨리 승진하기는 글렀고만.

김주임은 양일병에게 웃으며 힘내라는 듯 어깨를 툭 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 S#19 교통관리과 사무실 (N)

네 명의 직원이 각각의 자리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시 울리는 전화벨. 직원 1 전화 받는다.

직원1 : 네, 교통관리과입니다.

민원(V.O) : 아니, 너무들 하십니다. 저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피곤해서 실수로 잠깐 그 구간에 속도 올라간 것 까지 그렇게 벌점에, 벌금에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죽으라는 거요 뭐요.

직원1 : 네? 아니 그건 규정대로....

전화를 끊는 직원 2. 기지개를 켜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를 받는 직원 2

직원2: 네 교통관리과입니다

그 때,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교통관리과 사람들과 양일경.

양일경의 손에는 한 눈에도 앓아진 것이 보이는 서류철이 들려있다.

양일경은 전화를 받는 직원 2와 눈이 마주치자 서류를 가볍게 들어 올려 보인다.

전화를 받고 있는 직원2는 어깨를 으쓱 해보이며 양일경을 보고 가볍게 미소 짓는다.

얼마 안 되는 서류를 꺼내 캐비닛 안에 넣는 양일경.

활짝 열려 있는 캐비닛 안에는 세 달 정도 분량의 서류들이 날짜별로 정리 되어있고, 전체의 중간 날짜부터 급격하게 양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보인다.

캐비닛 안의 서류들 위로 계속해서 올려대는 전화벨 소리.

한참동안 벨이 울리자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는다.

직원 : 네, 교통관리과입니다.

전화 받는 직원 뒤로 두 사람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 몰린다.

김주임 : 강주임!

김주임의 외침에 그가 소리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양일경. 강주임과 그의 아내이다. 아내의 품에는 두 사람의 아기가 안겨 있다.

세 사람을 발견한 양일경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고 강주임과 그의 아내 또한 사무실 가운데로 걸어 들어온다.

사무실 안의 사람들 또한 반갑게 강주임 내외와 아이에게 다가간다.

강주임 : (양일경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잘 지냈냐!

양일경 : (아이를 보고 웃으며) 네

새근새근 잠들어있는 아이의 얼굴이 C.U. 된다.

-END-